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인 문 계 |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 오후 1

■ 출제 의도 및 근거

2025학년 인문계 논술(오후 1) 문제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제시문을 분석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해당 주제에 관련된 도전적인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묻고자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어가 된 '인공 지능'을 주제로 삼고, 이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 이면에서 숙고해야 할 인간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공 지능의 문제를 언어, 과학, 매체, 윤리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심층적이고 융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 문제는 발문을 통해 수험생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학습 원리를 설명하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현재의 인공 지능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분석하라는 요청이다. 이를 위해 수험생은 인간 학습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의 특징과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인공 지능과 허구적 인간을 학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대조하면서 짜임새 있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요청이다. 이를 위해 수험생은 첫째 번 요청의 결과로 구성한 학습에 대한 이해(인공 지능과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인간의 읽기와 쓰기'라는 상황에 적용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근거와 사례 등을 들어 해당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문항의 출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문 3개를 구성하였다. 제시문 (가)는 인공 지능의 학습 과정과 인공 지능의 현실 적용 사례를 우려와 낙관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적 주장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문학 작품 ≪어린 왕자≫의 한 장면으로 등장인물인 어린 왕자와 지리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은유적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학습에 대한 세 가지 관점(정보의 효율적 처리, 자기 점검과 성찰, 몸을 통한 맥락적 경험)을 소개한 글로, 각각의 관점에 따라 학습이라는 인간 활동의 본질을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이들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찾아 연결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서 (가)의 인공 지능과 (나)의 지리학자의 학습을 (다)에 제시한 정보, 성찰, 몸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고, 이를 읽기와 쓰기라는 상황에 적용하여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읽고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와 함께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제시문의 내용 및 구성의 원리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인공 지능에 관한 설명글이다. 첫째 단락에서는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정보처리 중심의 학습에 관해 설명한다. 인공 지능이 외부에서 주어진 대량의 정보를 규칙과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정보처리 학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성찰을 하면서' 배우거나 '몸소 경험하면서' 배운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단락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에 관한 우려와 낙관을 사례를 들어 대비시킨다. 우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공 지능은 정보를 하나의 사실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성찰 학습을 하지 못함) 정보처리의 결과물이 세상의 원리와 이해에 관한 직접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몸의 부재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및 맥락적 경험 부재)을 이해할 수 있다. 낙관의 측면에서는 인공 지능이 탁월한 텍스트 처리 및 생산 능력으로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 해결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 지능도 인간처럼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 글의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인공 지능 관련 내용에 착안하였고, 특히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인공 지능의 언어 처리 학습과 실제 사례에 관한 국내외의 신문 기사 및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화법과 작문', '독서'와 '매체'를 다루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윤리와 사상'에서 과학 기술과 윤리 및 정보 사회와 윤리를 다루는 ≪도덕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제시문의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작성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7-8쪽, 108쪽)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37쪽, 42-44쪽)
-≪생활과 윤리≫(김국현 외, 비상, 118쪽, 120쪽)
-≪생활과 윤리≫(정창우 외, 미래엔, 14쪽, 114-115쪽)
-≪생활과 윤리≫(변숭용 외, 천재교과서, 134쪽)
-≪사회·문화≫(손영찬 외, 미래엔, 183-184쪽)
-≪사회·문화≫(서범석 외, 지학사, 184-185쪽)
-중앙일보 기사(2024년 10월 15일). 〈가장 느린 법원도 나섰지만…AI 변호사, 국민과 직접 못 만난다〉
-뉴욕타임즈 칼럼(2023년 3월 9일). 〈False promise of ChatGPT〉
-포브스 기사(2023년 12월 6일). 〈4 AI therapy options reviewed: Do they work?〉
-가디언 기사(2024년 2월 29일). 〈Canada lawyer under fire for submitting fake cases created by AI chatbot〉
-뉴요커 칼럼(2023년 2월 9일). 〈ChatGPT is a blurry JPEG of the web〉
-≪기울어진 문해력≫(조병영, 2025)

제시문 (나)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일부이다. 제시문의 장면 속 대화에서 '지리학자'는 평생 지리부도를 읽고 쓰면서 공부한 학자이지만, 실제로 책에 담긴 지형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지 못한 '죽은 지식의 학자'를 은유한다. 지리학자는 지리부도 작성을 위해 탐험가의 말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정보처리 학습자'이면서, 자신이 아는 것(어디에 바다, 강, 도시, 사막이 있는지)과 모르는 것(실제 바다, 산, 도시, 강, 사막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을 구별하고 자기가 기록해야 할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출처(탐험가의 품행 조사)를 따진다는 점에서 '성찰적 학습자'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지리학자는 자신이 기록한 바다, 산, 도시, 강, 사막을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고, 그것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맥락적 경험을 통해 몸소 배우는 학습자라고 보기 어렵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학습에 관한 설명문이다. 제시문은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으로 하여 정보처리, 자기성찰, 몸의 경험을 강조하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각 관점의 핵심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처리 학습 관점—외부 정보 학습. 규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 정보의 생산적·효율적 처리와 기억 및 인출, 절차적 과정이 재현 및 학습, 기계적 반복 학습 등, 2) 자기성찰 학습 관점—학습 목적의 설정과 추구, 외부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 통합, 새로운 의미 구성, 자신의 앎과 이해에 관한 점검과 반성적 태도 등, 3) 몸의 경험을 통한 학습—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외부 세계(사람, 도구, 자원, 환경)와의 상호작용과 교감, 일생에 걸쳐 세상 지식과 공통 감각 축적, 구체적인 경험과 맥락의 중요성 등이다.

제시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독서의 본질, 언어와 매체의 원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인간 학습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읽기와 쓰기를 "정보를 분석·종합·비판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문화 행위"이며,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 "포괄적으로 사회·문화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을 참고하였다. 또한, 읽기와 쓰기가 문제 해결적 자료·정보 활용 역량뿐 아니라,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까지 요구하는 복합적 인간 활동이라는 설명도 고려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호-74호 [별책 5])
읽기와 쓰기 영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체계(6-8쪽)
선택과정 '화법과 작문'의 성격과 내용 체계(75-77쪽)
선택과정 '독서'의 성격과 내용 체계(91-93쪽)
선택과정 '언어와 매체' 내용 체계(106-108쪽)

1. 평가의 내용

1) 제시문 (가)의 세 가지 인간 학습의 관점이 갖는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적용하여 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인공 지능의 학습과 제시문 (나)의 작품 속 '지리학자'의 학습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분명하고 짜임새 있게 비교·분석했는지 여부

2)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의 주장(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1)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와 사례와 함께 서술했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table>
<tr><th>영 역</th><th colspan="2">항목과 핵심 내용</th><th>배 점</th></tr>
<tr><td>구성과 전개</td><td colspan="2">(다)의 세 가지 학습 관점을 적용하여 (가)의 인공 지능과 (나)의 지리학자가 어떤 학습자인지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짜임새 있게 기술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서 ㉠의 인공 지능이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절한 근거와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서술한다.</td><td>10</td></tr>
<tr><td rowspan="4">정확한 이해, 치밀한 분석, 창의적 적용 사이의 일관성 및 합리적 의견의 구성과 서술의 구체성</td><td>제시문 이해와 적용의 정확성</td><td>- 제시문 (다)의 세 가지 관점(정보처리, 자기성찰, 몸의 경험)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인공 지능의 학습이 정보처리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지리학자의 학습이 정보처리 및 자기성찰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가?</td><td>20</td></tr>
<tr><td>*분석의 엄밀성과 일관성(아래 표 분석 결과의 도식화 참조)</td><td>- 인공 지능과 (나) 지리학자를 세 가지 학습 관점에서 각각 치밀하게 분석하였는가? (세 가지 관점의 순서대로 (가)와 (나)를 분석할 수도 있고, (가)를 먼저 분석하고 다음 (나)를 분석할 수도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 (가령, 종합적 결론을 분석의 서두 혹은 말미에 진술할 수 있음)</td><td>20</td></tr>
<tr><td>이해의 적용(읽기와 쓰기 상황)과 의견 서술의 합리성과 창의성</td><td>- 학습의 세 가지 관점을 읽기와 쓰기의 상황에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는가? (읽기와 쓰기를 정보처리 관점, 자기성찰 관점, 몸을 통한 맥락적 경험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는가?)
- 이를 바탕으로 ㉠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타당하게 서술하였는가? (가령,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인간의 읽기/쓰기가 가지는 경험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자기성찰적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기반함. 반면 동의하는 경우 미래에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상상력-로봇 몸과 지능의 연결로 총체적 학습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 혹은 감각/경험/맥락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량 처리하여 구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td><td>30</td></tr>
<tr><td>근거와 사례의 적합성</td><td>-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들어 창의적·비판적으로 뒷받침했는가? (가령, '읽기와 쓰기'를 정의한 후 역사나 과학 읽기/쓰기, 교과서 읽기/쓰기, 비디오 게임 읽기/쓰기, 신문/뉴스/매체 읽기/쓰기, 디지털/인터넷 읽기/쓰기 등 다양한 예를 들고 이를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함)</td><td>10</td></tr>
<tr><td>문장과 표현</td><td colspan="2">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td><td>10</td></tr>
</table>

* 분석 결과의 도식화

분석		정보	성찰	몸(경험)
(가) 인공 지능	결과	○	×	×
	(가)에서 도출된 근거	-인간이 정한 목적 -외부의 주어진 정보 -정보의 처리/기억/인출 -데이터 처리, 메모리 용량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름 -복잡한 연산을 거쳐 대규모 언어 데이터 처리 -정보를 긁어모아 재조직한 것뿐임	-정보를 가치 중립적 사실로 받아들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음	-현실 세계의 원리와 맥락에 대한 능동적 경험과 이해 없음 -잊지 않은 사실을 말함 -사회적 상식과 감각에 어긋나는 제안
(나) 지리학자	결과	○	○	×
	(나)에서 도출된 근거	-책(두껍고 커다란)을 통해서만 배움 -탐험가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함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음(바다, 강, 도시, 사막의 위치는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있는지는 모름) -정보의 출처를 확인함(탐험가의 품행 조사) -정보의 정확성을 기함(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하지 않음)	-책에 있는 지식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지 못함 -서재를 떠나 나돌아 다니지 않고 탐험가를 맞이함 -지형을 직접 탐험하는 것은 지리학자의 일이 아님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❶ 글의 구성 측면에서 ❷~❸의 순서로 서술 내용을 명료하고 구성·조직하고,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취하고 있다. ❷ (다)의 세 가지 학습 관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각각의 특징과 차이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와 (나)의 제시문에서 찾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조직하여 서술하고 있다. ❸ ㉠의 주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간의 세 가지 학습 관점 측면에서 현재 또는 미래 인공 지능의 '읽기와 쓰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뒷받침한다.	❶~❸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❶~❸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동어반복 및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700자 미만.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어문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글이 매끄럽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①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양비론으로 서술하는 경우
  ② 논제와 관련 없이 인공 지능의 위험성이나 기술만능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우
  ③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분량의 상당 부분을 채운 경우